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공일자	2022. 12. 27. (화)	
홍보담당관	정춘택	803-5050
공보팀장	강명주	803-5144
담당자	박미경	803-5044

## - 2022년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 시민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 펼쳐

- 시정질문·5분발언 47건, 현장점검 26개소, 행정사무감사 482건 시정·건의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선진 정책 의회 지향
-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민생을 보듬는 의회상 구축
- 군위군 편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기능 확대에 대한 준비 완료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가 후보자 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후보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출범한 이래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라는 새로운 의정 슬로건을 선정하고 오직 시민을 위해 행동하는 민생의회를 추구하고 지난 6개월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9대 32명의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 현안을 꼼꼼히 파악하고, 연이은 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추경·본예산 심사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위군 대구 편입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면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였고, 시정 견제 및 감시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출범 이전에 제기됐던 우려를 걷어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과 민의 대변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제9대 의정활동의 틀을 잡다.

- 제9대 대구시의회의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 등 총 5회의 회기를 열고 총 2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조례·규칙안 119건, 예산·결산 15건, 동의·승인 59건, 건의·결의안 2건, 의견 청취 3건과 원구성 선임안 등 기타 30건을 심의·의결*

- 지난 8대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안건 처리건수가 2배 가량 증가 (8대 118건→9대 228건)하였으며 빠빠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 연구에 힘을 쏟았으며,

- 9대 들어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70개 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482건의 시정·건의 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민선8기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당면 현안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총 4회에 걸친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통해 대구 살림을 빈틈 없이 챙겼다. 2023년도 기준 대구시 예산 10조 7,307억 원과 시교육청 예산 4조 3,922억 원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23년 대구시 예산 심사에서는 첨단 유망기업 육성 지원에 4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 미래를 펼쳐나갈 투자에 집중했다.

□ 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다.

- 지난 6개월 동안 조례 발의 48건, 시정질문 11건, 5분 자유발언 36건을 실시하며 시정 견제와 제도개선에 열정을 보였다.

-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순환선 차량 시스템과 노선 변경, 두류정수장 터 매각 등 논란이 제기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하며 시정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3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민안전,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부진한 시정업무에 대한 대책마련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 □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쏟는다.

-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안동 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적극 힘을 보탰다.
- 하지만, 신청사 건립부지 일부 매각 등 사전 협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촉구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 활발한 의정 교류를 통해 역량의 폭을 넓히다.

- 이만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조직 및 인력 규정의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의회 협의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지방분권 실현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타시도 의회 내방 등 지방 의회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 간 우호를 쌓고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교류를 재기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해외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유관기관과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에 접목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호치민 문화예술원장 일행이 의회를 방문하여 두 나라의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였다.

□ 의회 전문성과 선진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다.

- 대구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특위전문위원, 법제지원팀을 신설하여 정책전문인력 충원으로 의회사무처의 무게 중심을 입법과 정책개발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두고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임위원회별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또한 의원 겸직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민선8기 새로 임명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차례 실시하여 간간한 역량 검증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 시민중심, 현장 중심의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발로 뛰다.

- 상임위원회별로 신청사 건립지, 서대구역사, 금호위터폴리스 현장 등 주요 현안사업 현장 26개소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 특히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과약하고 상인들과 조속한 지원대책을 논의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던 '민생현장탐방'도 앞산 관광 명소화 방안 모색을 시작으로 제9대에 들어서 재개되었다.

-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민소통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14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정책 반영을 건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36건의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 기간 동안 시민을 대신하여 따져 물었다. 또한 상화로입체 사업 반대 요청 등 111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 □ 이만규 의장은,

- “제9대 대구시의회는 개원 이후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법률안 국회 통과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해 왔으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새해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삶이 팍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시의회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과 대구미래산업 혁신을 위해 시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새해에도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